

『素問·脈要精微論』의 “尺”에 관한 考察

1. 『素問·脈要精微論』의 “尺”에 대한 제기들의 견해 ... 216
 - 1) 元明清代 주석가들의 견해 216
 - 2) 現代註釋家들의 견해 219
 - 3) 朝鮮末 李圭峻의 견해 221
2.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
……外以候心, 內以候膻中”과 전후 문단의 연관성 226
3.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
……外以候心, 內以候膻中.”의 각 문구에 대한 고찰 230
 - 1) “尺內兩傍則季脅也, 尺外以候腎, 尺裏以候腹中” .. 230
 - 2) “附上, 左, 內以候肝, 外以候鬲. 右, ……” 232

『素問·脈要精微論』의 “尺”에 관한 考察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황원덕

尺의 字典적인 의미는 길이의 단위이며, 의학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寸에 대비해서 寸맥부위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膚를 觸診하여 질병을 알아내는 부위 중의 하나인 ‘尺膚’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素問·脈要精微論』에서 “尺”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尺內兩傍則季脅也, 尺外以候腎, 尺裏以候腹中, 附上左, 外以候肝, 內以候鬲; 右, 外以候胃, 內以候脾. 上附上, 右, 外以候肺, 內以候胸中; 左, 外以候心, 內以候臍中.”이다.¹⁾

이 문장 내용의 의의는 『內經』 전편 중 五藏의 병증여부를 한 곳에서 切診²⁾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문장의 “尺”에 대한 諸家들의 견해차이 때문에 맥을 짚는 부위로 해석한 경우와 尺膚를 촉진하는 법으로 해석한 경우로 나뉘어진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아래와 같다.

먼저 『素問·脈要精微論』의 “尺”을 寸맥부위로 해석한 경우인데, 寸맥부위인 尺의 위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의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元明清代의 의가들의 견해로, 『難經·二難』의 “從關至尺, 是尺內, ……從關至魚際, 是寸口內, ……故陰得尺內一寸, 陽得寸內九分, 尺寸終始一寸九分, 故曰尺寸也”³⁾에 근거하여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 ……外以候心, 內以候臍中.”은 左右手의 氣口를 三指로 寸關尺을 짚어 五藏의 寸맥하는 법을 설명한 문장이며⁴⁾, 尺은 關에서 尺澤穴측으로一寸되는 곳이라 하였다.

둘째는 朝鮮末의 李圭峻의 견해로, 『素問·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 59.

2) 《內經》의 寸診法에는 望診, 聞診, 問診, 切診法이 있다. 이 중 切診法에는 皮膚를 觸診하여 病證의 유무를 알아내는 觸膚法과 脈을 짚어 病證의 유무를 알아내는 寸脈法으로 나뉘어진다.

3) 王思九等, 難經集注, 臺灣, 中華書局, 1987, pp. 17~18. “從關至尺, 是尺內, 陰之所治也. 從關至魚際, 是寸口內, 陽之所治也. 故分寸爲尺, 分尺爲寸. 尺寸終始一寸九分, 故曰尺寸也”

4)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出版社, 1982, p. 97. “愚按尺者, 對寸而言. 人身動脈雖多, 惟此氣口三部, 獨長一寸九分, 故總曰寸口.”

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外以候心, 內以候臆中.”은 氣口에서 一指로 浮沈을 짚어 五藏의 진맥하는 방법을 설명한 문장이며, 尺은 氣口를 아래로 눌러 骨이 닿는 沈部라 하였다. 그러므로 李圭峻은 본문의 “左右”를 左右手로 해석한 제가들의 견해와는 달리 層數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

다음으로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外以候心, 內以候臆中.”을 觸膚法의 ‘尺’으로 해석한 경우인데, 이의 대표적인 醫家로는 唐代의 王冰과 日本의 丹波元簡이다.⁶⁾ 이 학설은 현대 『內經』註釋家들에 의해 더욱 체계화되었다.⁷⁾ 이들은 『內經』全書에 寸關尺

인 三部脈에 관한 기제가 없고, 『素問·平人氣象論』에 “尺熱”, “尺寒”이라는 말이 있고, 『靈樞·論疾診尺』에 “尺膚澤” 등의 글이 있는 것에 의거해 『內經』全篇의 “尺”을 尺之皮膚로 해석하였다.⁸⁾ 따라서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은 左右手의 尺澤穴에서 魚際까지의 피부를 각각 三等分으로 축진하여 五藏을 살피는 법을 설명한 문장이라 하였으며, 尺은 尺澤穴의 皮膚라 하였다.⁹⁾

이에 논자는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外以候心, 內以候臆中.”에 대한 제가의 견해를 참고로 하여, 이 문단의 내용을 고찰해 보아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素問·脈要精微論』의 “尺”에 대한 제가들의 견해

1) 元明清代 주석가들의 견해

元明清代의 대부분 『內經』주석가들은¹⁰⁾ 『素問·五藏別論』의 “五臟六腑之氣味, 皆出於胃, 變見於氣口.”에¹¹⁾ 근거하여 氣口에서 五藏六腑의 맥을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들은 『內經』의 氣口를 『難經·二難』에서 말한 寸關尺 三部의 總名으로 보아¹²⁾ 桡骨側 高骨

5) 金信根, 韓國技術史資料大系, 醫藥學篇 42, 李圭峻, 素問大要(影印本),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03. ‘尺者氣口之下位也, 言其深也’, 上揭書, p.317. “《難經》曰, ‘脈有輕重, 何謂也? 然, 初指脈, 如三菽重, 與皮毛相得者, 肺部位也. 與六菽重, 與血脈相得者, 心部也. 如九菽重, 與肌肉相得者, 脾部也. 如十二菽重, 如筋平者, 肝部也. 按之至骨, 舉指來疾者, 腎部也.’ 此說已發盡無餘, 而其論, ‘尺寸則曰, 從關至尺澤, 是尺內, 從關至魚際, 是寸口.’ 此與前說, 自相矛盾, 是豈越人之終始乎?”, 李圭峻, 素問大要(附說), 李元世筆寫本, p.141. “左右者, 層數也”.

6) 丹波元簡, 聿修堂醫書選(素問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111~112. “王注, 謂尺澤之內也, 此即診尺膚之部位. 〈平人氣象論〉云 ‘尺澁脈滑’, ‘尺滑脈細’, 王注亦云, 謂尺膚也. 〈邪氣藏府病形篇〉云, ‘善調尺者, 不待于寸.’, 又云, ‘夫色脈與尺之相應, 如桴鼓影響之相應’, 〈論疾診尺篇〉云, “尺膚澤· · ·尺肉弱”, 十三難云, “脈數尺之皮膚亦數, 脈急尺之皮膚亦急”, 〈史記·倉公傳〉亦云, “切其脈, 順其尺.”, 仲景云, ‘按寸不及尺’. 皆其義也. 而其所謂之尺者, 〈說文〉‘尺, 十寸也. 人手卻十分動脈爲寸口, 十寸爲尺’, 尺所以指, 尺規矩事也. · · · 〈家語〉曰, ‘布指知尺, 舒肱知尋’ 明是尺即謂臂內一尺之部分, 而決非寸關尺之尺也.”

7) 李今庸 主編, 新編黃帝內經綱目,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p.365. “本段‘尺’의 含義, 多數注家認爲是寸口脈寸, 關, 尺三部之‘尺’, 并據此以注釋上, 中, 下三部臟腑分部, 是與《內經》本意不符的. 考《內經》全書, 并無寸口脈分三部的記載.”

8) 程士德主編, 素問注釋匯粹, 人民衛生出版社, 1982, p.253. “據《內經》無寸關尺三部的記載, 而《素問·平人氣象論》有“尺熱”, “尺寒”, 《靈樞·論疾診尺》有“尺膚澤”等文, 故當以王冰, 丹波元簡注爲是.”

9) 趙恩儉主編, 中醫脈診學, 서울, 醫聖堂, 1993, p.47. “(診尺是診尺之皮膚不是後世的脈法). 從寸口脈不分三關的情況看, 《內經》是以一指診脈而不是用三指診脈的.”

10) 元代的 戴啓宗, 滑壽, 明代的 張介賓, 清代的 馬蒔, 張志聰, 李時珍 등이 이에 속한다.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42.

을 關으로 잡고 關에서 魚際側까지 九分되는 寸맥범위를 寸이라 하고 關에서 尺澤側으로 一寸되는 寸맥범위를 尺이라 하였다. 그리고 藏府의 寸맥부위는 「難經·十八難」의 五行相生에¹³⁾ 근거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脇也, 尺外以候腎, 尺裏以候腹中. 附上左, 外以候肝, 內以候鬲. 右, 外以候胃, 內以候脾. 上附上, 左, 外以候心, 內以候膻中. 右, 外以候肺, 內以候胸中.”에서의 “尺”을 關에서 尺澤側으로 一寸되는 寸맥범위로 보았으며, 본문의 藏府의 寸맥부위를 「難經·十八難」에 근거하여 五行相生으로 해석하였다.¹⁴⁾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左尺에서 腎을 살피고 右尺에서 命門, 左手의 關에서 肝, 右手의 關에서 脾, 左의 寸에서 心, 右手의 寸에서 肺를 살피는 것이 된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左右手의 寸關尺에서 五藏을 寸맥하는 법은 이미 「內經」에 나타나 있으며, 王叔和의 「脈經」에서부터 비롯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¹⁵⁾¹⁶⁾¹⁷⁾

12) 程士德主編, 素問注釋匯粹, 前掲書, p.178. “姚止庵注: “氣口, 寸關尺之總名.”

13) “然, 手太陰陽明金也, 足少陰太陽水也. 金生水, 水流下行而不能上, 故在下部也. 足厥陰少陽木也, 生手太陽少陰火, 火炎上行, 而不能下, 故為上部. 手心主少陽火, 生足太陰陽明土, 土主中宮, 故在中部也.”

14) 馬時, 張志聰, 黃帝內經素問, 前掲書, p.137. “天為陽, 地為陰, 東南為陽, 西北為陰, 聖人南面而位, 左為陽, 右為陰, 天一生水, 水生木, 木生火, 是以心肝居左也. 地二生火, 火生土, 土生金, 是以脾肺居右也. 此先天之五行, 本於陰陽, 水火分而上生, 非臟體之謂也.”

15) 戴啓宗, 脈訣刊誤(影印本), 香港, 商務印書館, p.865. “氣口之部位, 何以為正也? 《脈要精微論》曰, “尺內兩傍則季脇也……下竟下者少腹腰股膝胫足中事也.” 此寸口部位之定位也.”

16) 滑壽, 難經本義, 臺北, 集文書局, 1982, p.19. “殊不知脈之所以分兩手者, 出於《素問·脈要精微論》, 其文甚明.”

17) 李時珍, 本草綱目(脈訣考證), 香港, 商務印書館,

그런데 이들의 견해대로 「內經」의 氣口를 「難經」의 寸關尺의 總名으로 해석하고, 이를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脇也, 尺外以候腎, 尺裏以候腹中. 附上左, 外以候肝, 內以候鬲. 右, 外以候胃, 內以候脾. 上附上, 左, 外以候心, 內以候膻中. 右, 外以候肺, 內以候胸中.”와 연관시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內經」의 氣口診脈法을 살펴보면 「內經」의 全篇에 寸關尺인 三部脈에 관한 기제가 없고 ‘關’字를 寸맥부위로 설명한 부분도 없으며, 氣口를 三部로 나누어 설명한 부분도 없다.

둘째, 「素問·玉機真藏論」에 肝의 맥상을 “春脈者肝也, 東方木也, 萬物之所以始生也, 故其氣來, 栗弱輕虛而滑, 端直而長.”이라 하였고, 心의 맥상을 “夏脈者心也, 南方火也, 萬物之所以成長也, 故其氣來盛去衰.”라 하였다.¹⁸⁾ 「內經」의 맥상을 「難經」의 寸關尺과 대비하여 보면, 平人의 맥상은 寸맥부위인 寸부위가 肝맥부위인 關부위보다 맥상이 더 盛하게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平人을 診脈할 때 寸尺보다는 關부위에서 脈이 더 盛하게 나타난다. 이 이유는 「內經」에서 맥동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으로 설정한 ‘氣口’는 곧 「難經」의 ‘關’부위에 해당되며¹⁹⁾, 이 부위는 다른 부위에 비해 맥동이 더 성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內

1930, p.5. “蓋本于宋人王宗正難經圖解, 豈知脈分兩手, 出於《素問·脈要精微論》, 而越人推明關脈及一脈十變于《難經》, 非始于叔和也.”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掲書, p.72.

19) 戴啓宗은 《難經》의 關부위가 九분이 되는 이유를 “魚際後一寸為陽之位, 太陰動脈, 前不及魚際橫紋一分, 後不及腕中橫紋九寸, 故古人於寸內取九分, 尺內取一寸.”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關’ 부위는 《內經》의 ‘氣口’와 같은 부위인 魚際後 一寸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經」에서 말한 心의 脈象과 肝의 脈象이 나타나는 부위를 『難經』의 진맥부위인 寸과 關으로 배속시킬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셋째, 『難經』에서 藏府의 진맥부위를 설명한 부분 중 君火, 相火의 진맥 부위를 『內經』의 君火, 相火의 위치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難經·十八難』에 “生手太陽少陰火, 火炎上行, 而不能下, 故爲上部. 手心主少陽火, 生足太陰陽明土君火”라 하여 君火는 上部에, 相火는 下部에 배속시켰으나, 『素問·五運行大論』에 “風寒在下, 燥熱在上, 濕氣在中, 火遊行其間”이라고²⁰⁾ 하였으며, 『素問·六微旨大論』에 “顯明之右, 君火治之, 君火之右, 相火治之.”라고²¹⁾ 하여 君火는 동남방에 배속되며 相火는 남방에 배속된다.²²⁾ 그러므로 君火와 相火의 위치를 左手의 上과 右手의 下로 설명한 『難經』의 이론은 君火와 相火의 위치를 논한 『內經』의 이론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넷째, 張志聰은 腎의 진맥부위를 左右手로 나누어 天一水를 左手의 尺으로, 地二火를 右手의 尺으로 해석하였는 바²³⁾, 이는 下部와 개념상의 의미가 통하는 ‘天一水’의 ‘水’와 ‘地二火’의 ‘地’를 尺과 연관시켰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內經』에서는 尺을 左右手로 나누지 않았고²⁴⁾, 『素

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南方生熱, …北方生寒.”이라²⁵⁾ 하였다. 그리고 『周易·河圖』를 살펴보면 “天一生水於北, 地二生火於南”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天一水는 北方의 개념인 下에 위치하며 地二火는 南方의 개념인 上에 위치한다.

이상에서 볼 때 右尺部인 下에 地二火가 있다는 張志聰의 설은 『內經』 및 『周易』의 火의 위치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다섯째 『難經·二難』에서는 맥동이 나타나는 다른 곳은 五行의 相生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유독 左右手의 寸關尺부위에 서만 五行의 相生을 언급하였고, 더구나 피부 표면에서 수평적으로 五行 相生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環周不休하므로, 인체의 맥동이 나타나는 모든 부위에서 가볍고 맑은 것은 위로 뜨고(清陽在上) 무겁고 탁한 것은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濁陰在下) 자연의 법칙이며, 五行의 氣象을 인체의 조직에서는 皮血肉筋骨 順으로 배속한 것이 한의학의 일반적인 논리이다. 그러므로 左右手의 寸關尺부위에서 五行의 相生으로 진맥부위로 설정한 것과 피부 표면에서 수평적으로 五行 相生이 이루어진다고 한 것은 한의학의 일반적인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脇也, 尺外以候腎, 尺裏以候腹中. 附上左, 外以候肝, 內以候鬲. 右, 外以候胃, 內以候脾. 上附上, 左, 外以候心, 內以候膻中. 右, 外以候肺, 內以候胸中.”을 『難經·二難』의 寸關尺과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 236.

21) 上揭書, p. 241.

22) 馬蒔, 張志聰, 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 489. “顯明之右, 君火之位者, 日出顯明, 卯地之右, 在方屬東南, 在時屬春分, 卯中之後, 爲君火之位也. 君火之右, 退行一步, 相火治之者, 地氣至南方, 相火位行令, 治夏至前後三之氣.”

23) 馬蒔, 張志聰, 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 137. “天爲陽, 地爲陰. 東南爲陽, 西北爲陰. 聖人南面爲立, 左爲陽, 右爲陰. 天一生水, 水生木, 木生火, 是以心肝居左也. 地二生火, 火生土, 土生金, 是以脾肺居右也. 此先天之五行本于陰陽水火, 分而上生, 非藏體之位也.”

24) 戴啓宗, 脈訣刊誤(影印本), 前揭書, p. 866, “本於(內經), 尺內以候腎, 原不曾分左右.”

2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 24.

『難經·十八難』의 三部九候法에 근거하여 해석하면 藏府의 寸맥부위 배속이 『內經』의 이론과 부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外以候心, 內以候臆中.”은 藏府의 寸맥부위를 左右手의 寸關尺과 五行의 相生으로 배속시켜 설명한 문장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素問·五藏別論』의 “五臟六腑之氣味, 皆出於胃, 變見於氣口.”에 근거하면, 『內經』의 氣口診脈法은 五藏六腑의 變化를 ‘氣口’에서 살펴야 하지만 寸關尺 三部로 나누어 살펴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2) 現代註釋家들의 견해

현대주석가들은 『內經』全篇에 ‘關’字를 寸맥부위로 설명한 부분이 없는 것에 근거하여²⁶⁾, 『內經』의 診脈法은 一指로 寸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였으며²⁷⁾, 十二經 및 三部九候에서 一指로 여러 곳을 寸맥하여 五藏六腑의 諸病유무를 診察하는 遍診法을 『內經』의 주요한 寸맥법으로 인식하였다²⁸⁾. 그래서 一指로 寸맥하는 『內經』의 氣口診脈法은 人迎과 대비하거나 尺膚와 대비하여 諸病여부를 알아내는 원시적인 寸맥법이며²⁹⁾, 三指로 寸맥하는 『脈經』의 氣

口寸맥법(兩手寸關尺)이 五藏의 病증여부를 알아내는 가장 발달된 寸맥방법이라고 인식하였다³⁰⁾.

그래서 이들은 唐代의 王冰, 日本의 丹波元簡 등의 注를³¹⁾ 인용하여 『內經』全篇의 “尺”을 尺之皮膚로 해석하였다.

이런 결과로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外以候心, 內以候臆中.”을 左右手의 氣口에서 寸關尺을 寸맥하여 五藏의 病증유무를 알아내는 법을 설명한 문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素問·脈要精微論』의 “尺”을 『內經』他篇과 마찬가지로 尺膚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런 관점으로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外以候心, 內以候臆中.”을 해석하면, 左手의 尺澤에서 魚際까지를 삼등분하여 각 나누어진 피부를 觸診하여 心, 肝, 腎 順으로 살피고, 右手의 尺澤穴에서 魚際까지를 삼등분하여 나눈 각 부분의 피부를 肱診하여 肺, 脾, 腎 順으로 살피는 것이 된다.

그런데 『內經』의 원문을 살펴보면 尺을 寸과 연관시켜 寸맥부위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況看, 《內經》是以一指診脈而不是用三指診脈的.”

30) 上揭書, p. 21. “《脈經》是後世脈法的第一部著作, 是剛剛完成獨取寸口法的專書.”

31) 丹波元簡, 前揭書, pp. 111~112. “王注, 謂尺澤之內也, 此即診尺膚之部位. 《平人氣象論》云 ‘尺澁脈滑’, ‘尺滑脈細’, 王注亦云, 謂尺膚也. 《邪氣藏府病形篇》云, ‘善調尺者, 不待于寸.’, 又云, ‘夫色脈與尺之相應, 如桴鼓影響之相應’, 《論疾診尺篇》云, “尺膚澤···尺肉弱”, 十三難云, “脈數尺之皮膚亦數, 脈急尺之皮膚亦急”, 《史記·倉公傳》亦云, “切其脈, 順其尺.”, 仲景云, ‘按寸不及尺’, 皆其義也. 而其所以謂之尺者, 《說文》‘尺, 十寸也. 人手卻十分動脈爲寸口, 十寸爲尺’, 尺所以指, 尺規矩事也. ·· ·· ·· 《家語》曰, ‘布指知尺, 舒肱知尋’ 明是尺即謂臂內一尺之部分, 而決非寸關尺之尺也.”

26) 李今庸 主編, 新編黃帝內經綱目, 前揭書, p. 365. “本段‘尺’的含義, 多數注家認爲是寸口脈寸, 關, 尺三部之‘尺’, 并据此以注釋上, 中, 下三部臟腑分部, 是與《內經》本意不符的. 考《內經》全書, 并無寸口脈分三部的記載.”

27) 趙恩儉主編, 中醫脈診學, 前揭書, p. 47. “診尺是診尺之皮膚不是後世的脈法). 從寸口脈不分三關的情況看, 《內經》是以一指診脈而不是用三指診脈的.”

28) 上揭書, p. 21. “由用各種方法診脈動如用十二經診法, 三部九候診法, 尺寸診法等等逐漸形成獨診寸口法, 直至完成了‘獨診寸口法’脈診才形成一個專門的學科”

29) 前揭書, p. 47. “從《內經》主要仍是遍診法, 以及在診寸口脈是, 有時是與人迎對比, 有時是與診尺對比(診尺是診尺之皮膚不是後世的脈法). 從寸口脈不分三關的情

이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素問·脈要精微論』의 “四變之動, 脈與之上下, 以春應中規, 夏應中矩, 秋應中衡, 冬應中權. ……陰陽有時, 與脈爲期, 期而相失, 知脈所分, 分之有期”은³²⁾, 四時 六氣의 陰陽이 升降함에는 時에 따른 일정한 규율이 있고, 인체의 맥이 이와 더불어 승강하니, 四時의 六氣가 五藏의 맥에도 구분되어 나타나므로 맥을 반드시 살펴야 함을 설명한 문장이다.

그리고 이 四時 운기의 변화를 脈에서 살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장은 『素問·五運行大論』의 “帝曰, 期之奈何? 岐伯曰, 從其氣則化, 違其氣則病, 不當其位者病, 迭移其位者病, 失守其位者危, 尺寸反者死, 陰陽交者死.”이다.³³⁾

즉 이 문장은 『素問·脈要精微論』의 “期而相失, 知脈所分, 分之有期, 故知死時. 微妙在脈, 不可不察, 察之有期”을 설명한 문장으로서 “尺寸”을 진맥부위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진맥부위인 尺寸을 운기의 司天과 在泉을 연관시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 『素問·至眞要大論』의 “尺候何如? 北政之歲, 三陰在下, 則寸不應, 三陰在上, 尺不應, 南政之歲, 三陰在天, 則寸不應, 三陰在天, 則尺不應, 左右同.”이다.³⁵⁾

그러므로 『素問·脈要精微論』의 “期而相

失, 知脈所分, 分之有期, 故知死時. 微妙在脈, 不可不察, 察之有期”의 내용 중 ‘知脈所分’을 『素問·五運行大論』과 『素問·至眞要大論』에서는 尺과 寸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內經』의 他篇에도 尺寸을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善診者, 察色按脈, 先別陰陽, 審清濁而知部分, 視喘息, 聽音聲, 而知所苦, 觀權衡規矩, 而知病所主, 按尺寸, 觀浮沈滑澹, 而知病所生, 以治無過, 以診則不失矣.”이다.³⁶⁾

본문 중 “按尺寸”에서 “按”의 字典의 의미는 ‘맥을 짚는다.’는 뜻과 ‘어루만지다.’는 뜻이 있다. 그래서 현대주석가들은 尺膚를 어루만지고 (觸하고), 寸은 맥을 짚는다고 해석하여 촉진법과 진맥법을 동시에 행하는 문장으로 보았다. 그런데 “按”이 두가지 뜻 모두를 의미한다면 문법상 『靈樞·邪氣藏府病形篇』의 “夫色脈與尺之相應, 如桴鼓影響之相應.”과 같이 진찰방법이 다른 尺과 寸을 구분하여 ‘按尺與寸’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더구나 이 문장의 내용은 察色, 診脈, 視喘息, 聽音聲의 네가지 진찰방법을 설명한 부분이므로, ‘按尺寸’은 뒷 문장의 ‘觀浮沈滑澹’과 연관시켜 볼 때 촉진법이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진맥법을 설명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內經』의 尺膚診法은 『靈樞·論疾診尺』에 尺膚觸診의 정의 및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즉 『靈樞·論疾診尺』에서 “黃帝問於岐伯曰, 余欲無視色持脈, 獨調其尺, 以言其病, 從外知內, 爲之奈何? 岐伯曰, 審其尺之緩急小大滑澹, 肉之堅脆, 而病形定矣”라고³⁷⁾ 하여 尺膚診

3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 58.

33) 上揭書, p. 237.

34) 方藥中 許家松,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 69~70. “問氣何如? 岐伯曰, 隨其所在, 期于左右. 帝曰, 期之奈何? 岐伯曰, 從其氣則化, 違其氣則病. 不當其位者病, 迭移其位者病, 失守其位者危, 尺寸反者死, 陰陽交者死.” 『素問·脈要精微論』 謂: “陰陽有時, 與脈爲期, 期而相失, 知脈所分, 分之有期, 故知死時. 微妙在脈, 不可不察, 察之有紀, 從陰陽始, 始之有經, 從五行生, 生之有度, 四時爲宜.” 這些論述的精神與本節所述完全一致, 讀者可以互參.”

3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 295.

36) 上揭書, p. 25.

의 정의를 말하였다. 또, “尺膚滑, 其淖澤者, 風也. 尺肉弱者, 解休, 安臥脫肉者, 寒熱, 不治. 尺膚滑而澤脂者, 風也. 尺膚濇者, 風痺也. 尺膚龜如枯魚之鱗者, 水溢飲也. 尺膚熱甚, 脈盛躁者, 病溫也, 其脈盛而滑者, 病且出也. 尺膚寒, 其脈小者, 泄, 少氣. 尺膚炬然, 先熱後寒者, 寒熱也. 尺膚先寒, 久大之而熱者, 亦寒熱也.”³⁷⁾ 하여尺膚를 병증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尺膚法은 인체의 전반적인 증상인 風, 解休安臥, 寒熱不治, 風痺, 水溢飲, 病溫, 泄, 少氣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五藏 病症을 세부적으로 연관시켜 설명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를 左手와 右手를 三部로 나누는 尺膚診法으로 본다면, 尺膚를 설명한 『內經』의 他篇에도 左手와 右手를 三部로 나누어 病症을 설명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尺膚를 설명한 『內經』의 他篇에서는 尺膚의 상태를 緩急, 澤粗, 寒熱, 尺肉의 弱脫로 인체의 전반적인 병증만을 설명하고 있으며, 尺膚를 左手와 右手 三部로 나누고, 이에 해당되는 藏府의 증상으로 설명한 부분은 없다.

또 『靈樞·論疾診尺』에서 “肘所獨熱者腰以上熱, 手所獨熱者腰以下熱, 肘前獨熱者膺前熱, 肘後獨熱者肩背熱, 臂中獨熱者腰腹熱, 肘後粗以下三四寸熱者腸中有蟲, 掌中熱者腹中熱, 掌中寒者腹中寒, 魚上白肉有青血脈者胃中有寒.”³⁸⁾이라 하여 여러 촉진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 觸膚法들을 尺膚法과 비교하면, 肘, 手, 肘前, 肘後, 臂中, 掌中, 魚上 등의 觸膚法들은 신체의 특정한 부위(腰, 膺, 肩背, 腰腹, 腸, 腹)의 증상을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尺膚의 觸法은 신체의 전반

적인 증상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尺膚診法은 특정한 부위인 尺膚를 觸診하여 신체의 전반적인 증상을 살피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총괄하면, 『內經』의 氣口診脈法은 氣口에서 尺寸을 살피 藏府를 진맥하는 방법이며, 촉진법은 藏府에 대한 진찰이 아니라 신체의 전반적인 증상이나 특정한 부위를 진찰하는 방법이므로,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 ……外以候心, 內以候膻中.”은 寸關尺 및 尺膚觸診法을 설명한 문장이 아니라, 尺을 기준으로 하는 氣口診脈法을 설명한 문장이라고 생각된다.

3) 朝鮮末 李圭峻의 견해

李圭峻은 그의 논문인 『素問附說·脈解』에서 “脈은 무엇인가? 生氣이다. 尺寸은 무엇인가? 진맥부위이다. 治病에 필수로 할 것이 있으니 반드시 生氣를 살피는 것이다. 生氣는 징후가 있으니 尺寸으로 그 징후를 헤아린다. 사람의 생에 있어서 內로는 肺心脾肝腎인 五藏의 위치가 있고 外로는 皮血肉筋骨인 五體의 숨이 있는데 이곳에 生氣는 한가지로 貫通해 있다. 『內經』에 가로되 ‘南方生熱, 熱生火, 火生心, 在藏爲心, 在體爲脈’이라고 하였다. 대저 脈이란 陽氣의 활동이므로 生氣를 살피는 곳인데, 心에서 總統하고 脾에서 化生하며 肺에서 宣布하면 藏府에 吮噓하고 百體를 鼓動시키는데, 手太陰肺經에서 大會하므로 脈氣가 없는 곳은 없지만 氣口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⁴⁰⁾ 하였으며,

37) 洪元植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1985, p. 309.

38) 上揭書, p. 309.

39) 前揭書, p. 309.

40) 李圭峻, 素問大要(影印本),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 315. “脈者何? 生氣也. 尺寸何? 部位也. 治病有要, 必審生氣. 生氣有候, 尺寸斯稽. 人之生也, 內有肺心脾肝腎五藏之位, 外有皮血肉筋骨五體之合, 其生氣貫通一也. 經曰, 南方生熱, 熱生火, 火生心, 在藏爲心, 在體爲脈. 夫

『素問·五藏別論』의 “五臟六腑之氣味, 皆出於胃, 變見於氣口.”의 注에 “氣口在魚際後一寸.”이라 하였다.⁴¹⁾ 그리고 “이 生氣는 한가지 (기운)로 貫通해 있다.……一氣가 屈伸(動靜)하여 四時가 변화하고 陰陽이 升降하니 脈도 이와 같이 上下(浮沈)로 浮沈한다. 그래서 春脈을 弦, 夏脈을 鉤, 長夏脈을 代, 秋脈을 毛, 冬脈을 石이라 한다. 呼出心肺하고 吸入肝腎하니 呼吸이 왕래함에 生氣를 가히 진찰할 수 있으므로, 가장 아래 뼈가 닿는 곳을 尺이라 하고 안으로써는 臂을 살피고 밖으로는 少腹을 살핀다. 그 上을 附上(붙여서 올린)이라 하는데, 左의 內에서 肝을 살피고 外에서 肓을 살피며, 右의 內에서 脾를 살피고 外에서 胃를 살핀다. 또 그 上을 上附上(그 위로 붙여 올린)이라 하는데, 이 左의 內에서 心을 살피고 外에서 膻中을 살피고 右의 內에서 肺를 살피고 外에서 胸中을 살핀다.…”라고⁴²⁾ 하였다. 이런 이유로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外以候心, 內以候膻中.”의 注에 “尺者氣口之下位也, 言其深也.”라고⁴³⁾ 하였다. 그래서 그는 『難經』의 寸맥법 중 五藏의 寸맥부위를 浮中沈으로 설명한 四難의 陰陽法⁴⁴⁾과 五難의 輕重法이 『素問·脈要

脈者陽之動而生之候也, 總統於心, 生化於脾, 宣布於肺, 响噓臍府, 鼓動百體, 大會於手太陰, 莫不有脈氣, 氣口最著.”

41) 上揭書, p. 129.

42) 前揭書, p. 315. “其生氣貫通一也,……一氣屈伸, 四時變化, 陰陽升降, 脈與之上下, 故春脈曰弦, 夏脈曰鉤, 長夏脈曰代, 秋脈曰毛, 冬脈曰石, 呼出心肺, 吸入肝腎, 呼吸往來, 生氣可診, 故下位曰尺, 內以候腎, 外以候少腹, 其上曰附上, 左, 內以候肝, 外以候肓; 右, 內以候脾, 外以候胃, 其上曰上附上, 左, 內以候心, 外以候膻中, 右, 內以候肺, 外以候胸中.”

43) 前揭書, p. 203.

44) 王思九等, 難經集注, 前揭書, pp. 35~37. “脈有陰陽之法, 何謂也? 然, 呼出心與肺, 吸入肝與腎, 呼吸之間, 脾受穀味也, 其脈在中, 浮者陽也, 沈者陰也, 故曰陰陽也.

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의 뜻을 남김없이 모두 밝힌 글이라 하였다.⁴⁵⁾

또한 寸關尺을 설명한 『難經·二難』의 “從關至尺澤是尺內, 從關至魚際是寸口.”는 맥을 짚는 방법이 輕重法과는 서로 모순되므로, 이 문장은 『內經』을 해설한 扁鵲의 글이 아니라 方士들이 임의로 간직해서 거짓으로 요란하게 만든 글로서 『內經』의 뜻을 그릇되고 어지럽게 하였으며, 王叔和에 이르러 더욱 쪼개므로 해서 더욱 떠나서 드디어 참 뜻이 숨어버렸다고 하였다.⁴⁶⁾

이상에서 李圭峻의 견해를 요약하면, 『內經』의 氣口진맥법은 氣口에서 수직으로 눌러 뼈가 닿는 부위까지를 십등분하여 가장 윗부분을 寸口, 가장 아래 부분을 尺으로 보고, 一指로 浮沈을 짚어 五藏을 진맥하는 법으로 보았다. 그리고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外以候心, 內以候膻中.”은 『內經』의 氣口診脈法을 설명한 문장으로 보았으며, 본문

心肺俱浮, 何以別之? 然, 浮而大散者心也, 浮而短澹者肺也. 腎肝俱沈, 何以別之? 然, 牢而長者肝也, 按之濡, 舉指來實者腎也, 脾者中州, 故其脈在中.”

45) 李圭峻, 素問大要(影印本), 前揭書, pp. 314~317.

“人之生也, 內有肺心脾肝腎, 五藏之位, 外有皮血肉筋骨, 五體之合, 其生氣貫通一也. …呼出心肺, 吸入肝腎, 呼吸往來, 生氣可診, 故下位曰尺, 內以候腎, 外以候少腹, 其上曰附上, 左, 內以候肝, 外以候肓; 右, 內以候脾, 外以候胃. 其上曰上附上, 左, 內以候心, 外以候膻中, 右, 內以候肺, 外以候胸中. 心肺在上, 故上以候之, 肝腎在下, 故下以候之. …秋脈最浮而夏脈稍沈, 冬脈最沈而春脈稍浮, 脾脈在浮沈之中……難經曰, 脈有輕重, 何謂也? 然, 初持脈如三菽重與皮毛相得者, 肺部也, 如六菽重與血脈相得者, 心部也, 如九菽重與肌肉相得者, 脾部也, 如十二菽重與筋平者, 肝部也, 按至之骨, 舉指來疾者, 腎部也. 此說已發盡無餘.”

46) 上揭書, p. 317. “其論尺寸則, 曰從關至尺澤是尺內, 從關至魚際是寸口, 此與前說, 自相矛盾, 是豈越人之終始乎? 抑方士秘藏而謬亂之邪, 至王叔和作脈決, 愈折愈離, 眞言遂隱矣.”

중의 “左”와 “右”는 層數를 의미한다고 하였다.⁴⁷⁾

이런 관점으로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外以候心, 內以候臍中.”을 해석하면, “氣口의 深部인 尺부위를 눌러 手指의 양쪽 바깥부위에 나타나는 맥상으로는 季脅을 살피고, 手指의 중앙부분에 나타나는 맥상으로는 臍을 살피며, 위로 약간 들어 올려 나타나는 맥상으로는 腹中을 살핀다. 그리고 붙여서 올린 층의 內에서 肝을 살피고 外에서 膈을 살피며, 한 층위의 內에서 脾를 살피고 外에서 胃를 살핀다. 그 위로 붙여 올린 층의 內에서 心을 살피고 外에서 膻中을 살피고 그 윗 층의 內에서 肺를 살피고 外에서 胸中을 살핀다.”가 된다.

『素問·脈要精微論』에 “四變之動, 脈與之上下, 以春應中規, 夏應中矩, 秋應中衡, 冬應中權. 是故冬至四十五日陽氣微上, 陰氣微下, 夏至四十五日陰氣微上, 陽氣微下, 陰陽有時, 與脈爲期, 期而相失, 知脈所分, 分之有期, 故知死時, 微妙在脈, 不可不察, 察之有紀, 終陰陽始, 始之有經, 從五行生, 生之有度, 四時爲宜, 補瀉勿失, 與天地如一, 得一之精, 以知死生.”이라⁴⁸⁾ 하였다. 이 문장 중 “陰陽有時, 與脈爲期, 期而相失, 知脈所分, 分之有期”는 운기의 변화가 맥에 나타남을 설명한 문장이며, 六氣중 間氣를 설명한 『素問·五運行大論』의 “帝曰, 間氣何如? 岐伯曰, 隨氣所在, 期於左右. 帝曰, 期之奈何? 岐伯曰, 從其氣則化, 違其氣則病. 不當其位者病, 迭移其位者病, 失守其位者危, 尺寸反者死, 陰陽交者死.”와 내용상 서로 일치한다.⁴⁹⁾ 즉 “違其氣則

病.”은 主氣와 客氣가 일치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맥이 나타남을 말한 부분으로⁵⁰⁾ 『素問·脈要精微論』의 “陰陽有時, 與脈爲期, 期而相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다. 그리고 “不當其位者病, 迭移其位者病, 失守其位者危, 尺寸反者死, 陰陽交者死.”의 “位”는 藏府脈象의 위치를 뜻하고 尺寸은 寸맥부위를 뜻하며, 『素問·脈要精微論』의 “期而相失, 知脈所分, 分之有期”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다.⁵¹⁾

그리고 『素問·五運行大論』중 間氣와 寸맥부위인 尺寸을 연관시킨 이 내용은 『素問·至真要大論』에 南政과 北政으로 나누어 尺과 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인용하면 『素問·至真要大論』의 “陰之所在寸口, 何如? 岐伯曰, 視歲南北, 可知之矣. 帝曰, 願卒聞之. 岐伯曰, 北政之歲, 少陰在泉, 則寸口不應, 厥陰在泉, 則右不應, 太陰在泉, 則左不應. 南政之歲, 少陰司天, 則寸口不應, 厥陰司天, 則右不應, 太陰司天, 則左不應, 諸不應者, 反其診則見矣. 帝曰, 尺候何如? 北政之歲, 三陰在下, 則寸不應, 三陰在上, 則尺不應. 南政之歲, 三陰在天, 則寸不應, 三陰在泉, 則尺不應, 左右同.”이다.⁵²⁾

生出版社, 1984, pp. 69~70. “問氣何如? 岐伯曰, 隨其所在, 期于左右. 帝曰, 期之奈何? 岐伯曰, 從其氣則化, 違其氣則病. 不當其位者病, 迭移其位者病, 失守其位者危, 尺寸反者死, 陰陽交者死.” <素問·脈要精微論> 謂: “陰陽有時, 與脈爲期, 期而相失, 知脈所分, 分之有期, 故知死時, 微妙在脈, 不可不察, 察之有紀, 從陰陽始, 始之有經, 從五行生, 生之有度, 四時爲宜.” 這些論述的精神與本節所述完全一致, 讀者可以互參.”

50) 上揭書, 1984, pp. 69~70. “所謂“違其氣則病”, 卽客氣與主氣不一致, 則脈象就會出現反常而爲疾病.”

51) 上揭書, pp. 69~70. “不當其位”, “迭移其位”, “失守其位”의 “位”字, 是指脈象中臟腑所居之位. “尺寸”, 是指脈的尺脈和寸脈.”

5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p. 294~295.

47) 李圭晚, 素問大要(附說), 李元世筆寫本, p. 141. “左右者, 層數也.”

4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 58.

49) 方藥中 許家松,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人民衛

인용한 문장에서 尺과 寸의 관계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張介賓은 三陰의 위치는 즉 少陰이 中에 있고 太陰이 左, 厥陰이 右에 있는데, 脈의 不應은 三陰의 中間에 少陰이 居處하는 것으로 말하기 때 문이라 하여⁵³⁾ 少陰이 이동함에 따라 寸부위도 같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北政之歲, 少陰在泉, 則寸口不應, 厥陰在泉, 則右不應, 太陰在泉, 則左不應.”을, 北政의 歲에 少陰이 在泉에 있으면 兩手의 寸口가 不應하고, 厥陰이 在泉에 있으면 右寸이 不應하며, 太陰이 在泉에 있으면 左寸이 不應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⁵⁴⁾

그런데 南政과 北政은 『素問·五運行大論』에 “面北而命其位”, “面南而命其位.”라⁵⁵⁾ 하였다. 즉 南政은 “面北而命其位”이므로 位南面北이 이에 해당되고, 北政은 “面南而命其位”이므로 位北面南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南政은 司天을 上으로 잡고 下인 在泉을 살피며, 北政은 在泉을 上으로 잡고 下인 司天을 살피는 것이 된다. 그리고 南政의 間氣는 司天의 左右이며, 北政의 間氣는 在泉의 左右이다. 이를 진맥부위인 寸과 尺을 연관시키면, 南政인 경우는 司天을 기준하므로 上인 司天은 寸에 해당되고 下인 在泉은 尺에 해당되며, 北政인 경우는 在泉을 기준하므로 上인 在泉은 寸에 해당되고 下인 司天은 尺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⁵⁶⁾ 여기서 歲에 따

라 司天과 在泉에 들어오는 三陰三陽은 바뀌지만 在泉과 司天의 위치가 바뀌지 않듯이 北政인 경우 在泉에 해당되는 寸의 위치와 司天에 해당되는 尺의 위치도 바뀌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문의 “右不應”과 “左不應”의 左右에 대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素問·五運行大論』에 “天地者, 萬物之上下, 左右者, 陰陽之道路, 未知其所謂也? 岐伯曰, 所謂上下者, 歲上下, 見陰陽之所在也. 左右者, 諸上見厥陰, 左少陰右太陽...”이라 하였으며, 『素問·至真要大論』에 “帝曰, 間氣何謂? 岐伯曰, 司左右者, 是謂間氣也.”라고⁵⁷⁾ 하였으며, 『素問·五運行大論』에 “上者右行, 下者左行.”이라고⁵⁸⁾ 하였다. 이상을 참고로 하면 左는 下에서 上으로 올라가는 과정이며, 右는 上에서 下로 내려가는 과정을 말한 것이다.⁵⁹⁾ 그러므로 운기의 間氣인 左右를 인체의 진맥부위인 尺寸과 연관시키면 尺寸이 左手와 右手에 배속되어 있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左는 下인 尺에서 上인 寸으로 올라오는 것이고 右는 上인 寸에서 下인 尺으로 내려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北政之歲, 少陰在泉, 則寸不應, 厥陰在泉, 則右不應, 太陰在泉, 則左不應.”은 北政之歲의 在泉에 三陰이 들어올 때 이것들의 영향이 맥에 나타남을 설명한 부분이다. 『素問·至真要大論』에 少陰은 “不司氣化, 居氣爲灼化.”라 하였⁶⁰⁾ 이는 마치 君主가 上에서 萬事를 주재하

53)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出版社, 1982, pp. 56~57. “三陰之位, 則少陰居中, 太陰居左, 厥陰居右. 脈之不應者, 乃以三陰之中少陰所居之處言之.”

54) 上揭書, p. 57. “北政之歲, 少陰在泉, 則寸口不應, 正以北政之年, 司天應尺, 而在泉應寸也. ‘厥陰在泉, 則右不應’, 右者右寸也, 以少陰居厥陰之左, 而以地之左間, 爲右寸也. ‘太陰在泉, 則左不應’, 左者左寸也, 以少陰居太陰之右, 而以地之右間, 爲左寸也.”

5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 236.

56) 程士德主編, 素問注釋匯粹, 前揭書, pp. 394~395. “張介賓注: 北政之歲, 反于南政, 故在下者主寸, 在上者主

尺. 上下, 卽司天在泉也. 南政之歲, 反于北政, 故在天主寸, 在泉主尺也.”

5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 293.

58) 上揭書, p. 237.

59) 馬蒔, 張志聰, 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p. 461~463. “在上者司天, 在下者遠地. 如子年少陰在上, 則陽明在下矣, ……上者右行, 下者左行, 則知天常于上, 自右降東南, 而旋迴以臨地, 地常于下, 自左升東北, 而循顯明木君相土金水之位, 循環臨天而皆動也.”

듯이 君火인 少陰은 上에 居하여 氣化를 다스리지 않는 때가 없으며, 주재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間氣라고 칭하지 않고 居氣라 하였다.⁶¹⁾ 따라서 北政之歲의 上인 在泉에 少陰이 있으면 少陰은 左右의 間氣를 모두 主宰하는 君火의 象으로 上에 居하므로, 脈에도 이와 더불어 上에 해당되는 寸이 應한다. 그리고 風木인 厥陰은 生氣가 下에서 上으로 生하는 氣象이므로⁶²⁾ 北政之歲에 厥陰이 在泉일 경우에는 天地의 기상 이 下에서 上升하므로 맥도 이와 더불어 下에서 上으로 올라가는 左가 應한다. 또한 三陰의 순서는 厥陰, 少陰, 太陰順이므로 厥陰이 下에서 左升하여 上인 少陰에 이르게 되면 上에서 右로 下降하는 太陰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北政之歲에 太陰이 在泉일 경우에는 맥도 이와 더불어 上에서 下로 내려가는 右가 應한다.

그러므로 「素問·至眞要大論」의 “陰之所在寸口何如?……北政之歲, 少陰在泉, 則寸口不應, 厥陰在泉, 則右不應, 太陰在泉, 則左不應.”에서 ‘厥陰在泉’과 ‘太陰在泉’을 寸과 연관시켜 脈의 不應을 설명하면, ‘厥陰在泉, 則右不應’은 厥陰이 在泉에 있으면 맥은 上에서 下로 내려가는 右가 不應함을 말한 것이지 厥陰이 在泉에 있으면 寸이 右手에 있음을 말한 것이 아니며, ‘太陰在泉, 則左不應’도 이와 마찬가지로 太陰이 在泉에 있으면 맥은 下에서 上으로 올라오는 左가

不應함을 말한 것이지 太陰이 在泉에 있으면 寸이 左手에 있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본 문장을 해석하면, “北政之歲에, 少陰이 在泉에 있으면 寸맥부위인 寸口가 不應하고, 厥陰이 在泉에 있으면 맥은 上에서 下로 내려가는 右가 不應하며, 太陰이 在泉에 있으면 맥은 下에서 上으로 올라가는 左가 不應한다.”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상을 총괄하면 「素問·五運行大論」과 「素問·至眞要大論」 중 間氣와 尺寸을 연관시켜 설명한 부분을 참고로 하면, 「素問·脈要精微論」의 “四變之動, 脈與之上下, 以春應中規, 夏應中矩, 秋應中衡, 冬應中權……陰陽有時, 與脈爲期, 期而相失, 知脈所分, 分之有期”는, 四時에 따른 六氣의 변동이 下에서 左로 上行하고 上에 이르면 右로 下行하는 것 처럼 人體의 맥도 이와 더불어 升降하여 春脈(肝)은 弦, 夏脈은 鉤, 秋脈은 毛, 冬脈은 石, 長夏脈은 代가 됨을 설명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이를 「素問·五運行大論」에서는 尺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素問·至眞要大論」에서는 寸을 上, 尺을 下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上下의 개념은 수평이 아니라 수직적인 上下(司天, 在泉)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자들은 「難經·二難」의 “尺寸終始一寸九分, 故曰尺寸”에 근거하여 「內經」의 尺寸을 수평 개념인 寸關尺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東漢시대의 許慎이 편찬한 「說文解字」에 “尺十寸也, 人手却十分動脈謂寸口, 十寸爲尺.”이라 하였으며, 「素問·經脈別論」에 “權衡以平, 氣口成寸, 以決死生.”이라⁶³⁾ 하였다. 여기에서

6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掲書, p. 293. “厥陰司天爲風化, 在泉爲酸化, 司氣爲蒼化, 間氣爲動化. 少陰司天爲熱化, 在泉爲苦化, 不司氣化, 居氣爲灼化. 太陰司天爲濕化, 在泉爲甘化, 司氣爲化, 間氣爲柔化.”

61) 張介賓, 類經下, 서울, 大星出版社, 1982, p. 624. “正以君火者, 太陽之火也, 爲陽氣之本, 爲萬化之原, 無氣不司, 故不司氣化也……不曰間氣而曰居氣者, 君之所居, 無往不尊, 故不敢言間氣也.”

62) 上掲書, p. 623. 《素問·至眞要大論》의 “厥陰司天, 其化以風.”의 張介賓 註에 “厥陰屬木, 其化以風. 凡和氣升陽, 發生萬物, 皆風之化.”라 하였다.

6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掲書, p. 86.

『內經』이 성행하던 漢代에 이미 寸을 寸맥부위로 설명하고 있고 寸과 대비되는 尺은 十寸되는 寸맥부위임을 알 수 있으며,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內經』의 尺과 寸은 수직적인 개념을 뜻하는 上下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內經>의 尺寸의 관계는 魚際後一寸을 寸口로 잡고 아래로 십등분하여 가장 深部가 “尺”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外以候心, 內以候臍中.”의 尺을 寸의 對比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尺者氣口之下位也, 言其深也.”라고 註한 李圭峻의 견해는 자연의 이치와 『內經』 원문의 의미와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2.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外以候心, 內以候臍中”과 전후 문단의 연관성

『內經』의 형식은 어떤 주제를 黃帝와 岐伯이 문답하는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外以候心, 內以候臍中.”은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寸맥방법에 대한 岐伯의 대답에 속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黃帝가 맥을 묻고 있는 부분부터 岐伯이 寸맥법을 답하고 있는 부분까지를 인용하고, 본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본 문장의 전후문단과 연관시켜 고찰하였다.

岐伯의 대답인 “尺內兩傍則季脅也,……外以候心, 內以候臍中.”은 寸맥법을 설명한 부분이므로, 寸맥법을 묻는 “帝曰. 脈其四時動奈何. 知病之所在奈何. 知病之所變奈何. 知病乍在內奈何. 知病乍在外奈何.……”를 도입부로 정하였다. 그리고 “帝

曰. 脈其四時動奈何. 知病之所在奈何. 知病之所變奈何. 知病乍在內奈何. 知病乍在外奈何.…….”의 질문 내용 중 “知病乍在內奈何. 知病乍在外奈何.”에 대한 대답이 『素問·脈要精微論』의 끝 문단에 “推而以外之, 內而不外, 有心腹積也. 推而內之, 外而不內, 身有熱也.”라 하였다. 그래서 “推而以外之, 內而不外, 有心腹積也. 推而內之, 外而不內, 身有熱也.”가 속해 있는 “蠱大者, 陰不足陽有餘, 爲熱中也.……按之至骨, 脈氣少者, 腰脊痛而身有瘳也.”를 말단부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을 내용상 아홉 문단으로 나누고, “尺內兩傍則季脅也,……外以候心, 內以候臍中.”과 이 문장의 전후문단을 내용적으로 연관시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① 帝曰, 脈其四時動奈何, 知病之所在奈何, 知病之所變奈何, 知病乍在內奈何, 知病乍在外奈何, 請問此五者可得聞乎? 岐伯曰, 請言其與天運轉大也, 萬物之外, 六合之內, 天地之變, 陰陽之應, 彼春之暖, 爲夏之暑, 彼秋之忿, 爲冬之怒, 四變之動, 脈與之上下, 以春應中規, 夏應中矩, 秋應中衡, 冬應中權. 是故冬至四十五日, 陽氣微上, 陰氣微下. 夏至四十五日, 陰氣微上, 陽氣微下. 陰陽有時, 與脈爲期, 期而相失, 知脈所分, 分之有期, 故知死時. 微妙在脈, 不可不察, 察之有期, 從陰陽始, 始之有經, 從五行生, 生之有度, 四時爲宜, 補瀉勿失, 與天地如一, 得一之精, 以知死生. 是故聲合五音, 色合五行, 脈合陰陽.

② 是知陰盛則夢涉大水恐懼, 陽盛則夢大火燔灼, 陰陽俱盛則夢相殺毀傷. 上盛則夢飛, 下盛則夢墮. 甚飽則夢予, 甚飢則夢取. 肝氣盛則夢怒, 肺氣盛則夢哭. 短蟲多則夢聚衆, 長蟲多則夢相擊

毀傷.

③ 是故持脈有道，虛靜爲保。春日浮，如魚之遊在波。夏日在膚，泛泛乎萬物有餘。秋日下膚，蟄蟲將去。冬日在骨，蟄蟲周密，君子居室。故曰，知內者按而紀之，知外者終而始之。此六者，持脈之大法。

④ 心脈搏堅而長，當病舌卷不能言。其栗而散者，當消環自已。肺脈搏堅而長，當病唾血。其栗而散者，當病灌汗，至今不復散發也。肝脈搏堅而長，色不青，當病墜若搏，因血在脇下，令人喘逆。其栗而散，色澤者，當病溢飲，溢飲者渴暴多飲，而易入肌皮腸胃之外也。胃脈搏堅而長，其色赤，當病折脾。其栗而散者，當病食痹。脾脈搏堅而長，其色黃，當病少氣。其栗而散，色不澤者，當病足脘腫若水狀也。腎脈搏堅而長，其色黃而赤者，當病折腰。其栗而散者，當病少血，至今不復也。

⑤ 帝曰，診得心脈而急，此謂何病，病形何如？岐伯曰，病名心疝，少腹當有形也。帝曰，何以言之？岐伯曰，心爲牡藏，小腸爲之使，故曰，少腹當有形也。帝曰，診得爲脈，病形何如？岐伯曰，胃脈實則脹，虛則泄。

⑥ 帝曰，病成而變何謂？岐伯曰，風成爲寒熱，痺成爲消中，厥成爲癰疾，久風爲飧泄，脈風成爲癰，病之變化，不可勝數。帝曰，諸癰腫筋攣骨痛，此皆安生？岐伯曰，此寒氣之腫，八風之變也。帝曰，治之奈何？岐伯曰，此四時之病，以其勝治之，愈也。

⑦ 帝曰，有故病五藏發動，因傷脈色，各何以知其久暴至之病乎？岐伯曰，悉乎哉問也。徵其脈小色不奪者，新病也。徵其脈不奪其色奪者，久病也。徵其脈與五色俱奪者，此久病也。徵其脈與五色俱不奪者，新病也。肝與腎脈並至，其色蒼赤，當病毀傷，不見血，已見血，濕若中水也。

⑧ 尺內兩傍則季脇也，尺裏以候腎，尺外以候

腹中，附上左，內以候肝，外以候鬲。右，內以候脾，外以候胃。上附上，左，內以候心，外以候膻中。右，內以候肺，外以候胸中。前以候前，後以候後，上竟上者，胸喉中事也，下竟下者，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

⑨ 龐大者，陰不足陽有餘，爲熱中也。來疾去徐，上實下虛，爲厥顛疾。來徐去疾，上虛下實，爲惡風也，故中惡風者，陽氣受也。有脈俱沈細數者，少陰厥也。沈細數散者，寒熱也。浮而散者，爲陶仆。諸浮而躁者，皆在陽，則爲熱。其有躁者在手。諸細而沈者，皆在陰，則爲骨痛。其有靜者在足。數動一代者，在陽之脈也，洩及便膿血。諸過者切之，滑者陽氣有餘也，澹者陰氣有餘也。陽氣有餘，爲身熱無汗。陰氣有餘，爲多汗身寒。推而外之，內而不外，有心腹積也。推而內之，外而不內，身有熱也。推而上之，下而不上，腰足清也。推而下之，上而不下，頭項痛也。按之至骨，脈氣少者，腰脊痛而身有痺也。

①문단의 주제는 1) 四時變動, 2) 病之所在, 3) 病之病變, 4) 病乍在內, 5) 病乍在外등 이 다섯가지를 맥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다.⁶⁴⁾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면 ②문단은 인체의陰陽盛衰로 인하여 각각 다른 夢幻이 나타남을 논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靈樞·淫邪發夢』에 기재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宋代의 新校正, 張琦등이 이 문단을 “他經脫文(다른 經의 이탈된 글)”, “誤置於斯.(잘못 여기에 놓임)”이라⁶⁵⁾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64) 馬元臺, 張隱庵, 黃帝內經素問, 前揭書, p.130. “此帝欲以脈知五者.”

65) 程士德主編, 素問註釋匯粹, 前揭書, pp.242~243. “此節論述了由人體的陰陽盛衰, 可以發生不同的夢幻, 其內容與《靈樞·淫邪發夢》有關記載相一致, 但本篇小心, 脾, 腎臟氣盛所發之夢. 所以新校正, 張琦等認是“它經脫文”誤置於斯.”

그리고 ⑥문단은 病이 형성되어 다른 병으로 변화함을 말한 부분이므로, ①문단에서 묻고 있는 것은 他病的 변화를 맥으로 알 수 있는 방법과는 주제의 방향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장은 「素問·風論」중 風이 他病으로 변화하는 것을 설명한 부분과 내용상 거의 일치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風成寒熱”은 「素問·風論」에 “風者善行而數變，腠理開則灑然寒，閉則熱而悶，其寒也則衰飲食，其熱也則消肌肉，故使人怵慄而不能食，名曰寒熱”과 연관이 있으며，

(2) “疝成爲消中”은 「素問·風論」에 “風氣與陽明，入胃循脈而上至目內眥，其人肥則風氣不得外泄，則爲熱中而目黃”과 연관이 있고，

(3) “厥成爲癰疾”은 「素問·風論」에 “風氣循風府而上則爲腦風，風入繫頭則眼風眼寒”과 연관이 있으며，

(4) “脈風成爲癘”은 「素問·風論」에 “風寒之客於脈而不去，名曰癘風，或名曰寒熱”과 연관이 있으며，

(5) “久風爲飧泄”은 「素問·風論」에 “久風入中，則爲腸風飧泄”과 연관이 있으며，

(6) “帝曰，病成而變何謂也?…病之變化，不可勝數”는 「素問·風論」의 “故風者百病之長也，至其變化，乃爲他病也，無常方，然致有風氣也.”라 한 것과 내용상 서로 연관성이 있다.

그러므로 ⑥문단은 「素問·風論」의 내용이 여기에 誤置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②문단과 ⑥문단을 본문에서 刪削하여 다시 구성하였다.

① 帝曰，脈其四時動奈何，知病之所在奈何，知病之所變奈何，知病乍在內奈何，知病乍在外奈何，請問此五者可得聞乎? 岐伯曰，請言其與天運

轉大也，萬物之外，六合之內，天地之變，陰陽之應，彼春之暎，爲夏之暑，彼秋之忿，爲冬之怒，四變之動，脈與之上下，以春應中規，夏應中矩，秋應中衡，冬應中權。是故冬至四十五日，陽氣微上，陰氣微下。夏至四十五日，陰氣微上，陽氣微下。陰陽有時，與脈爲期，期而相失，知脈所分，分之有期，故知死時。微妙在脈，不可不察，察之有期，從陰陽始，始之有經，從五行生，生之有度，四時爲宜，補瀉勿失，與天地如一，得一之精，以知死生。是故聲合五音，色合五行，脈合陰陽。

② 是故持脈有道，虛靜爲保。春日浮，如魚之遊在波。夏日在膚，泛泛乎萬物有餘。秋日下膚，蟄蟲將去。冬日在骨，蟄蟲周密，君子居室。故曰，知內者按而紀之，知外者終而始之。此六者，持脈之大法。

③ 心脈搏堅而長，當病舌卷不能言。其奕而散者，當消環自己。肺脈搏堅而長，當病唾血。其奕而散者，當病灌汗，至令不復散發也。肝脈搏堅而長，色不青，當病墜若搏，因血在脇下，令人喘逆。其奕而散，色澤者，當病溢飲，溢飲者渴暴多飲，而易入肌皮腸胃之外也。胃脈搏堅而長，其色赤，當病折脛。其奕而散者，當病食痹。脾脈搏堅而長，其色黃，當病少氣。其奕而散，色不澤者，當病足胫腫若水狀也。腎脈搏堅而長，其色黃而赤者，當病折腰。其奕而散者，當病少血，至令不復也。

④ 帝曰，診得心脈而急，此謂何病，病形何如? 岐伯曰，病名心疝，少腹當有形也。帝曰，何以言之? 岐伯曰，心爲牡藏，小腸爲之使，故曰，少腹當有形也。帝曰，診得爲脈，病形何如? 岐伯曰，胃脈實則脹，虛則泄。

⑤ 帝曰，有故病五藏發動，因傷脈色，各何以知其久暴至之病乎? 岐伯曰，悉乎哉問也。徵其脈小色不奪者，新病也。徵其脈不奪其色奪者，久病也。徵其脈與五色俱奪者，此久病也。徵其脈與五

色俱不奪者，新病也。肝與腎脈並至，其色蒼赤，當病毀傷，不見血，已見血，濕若中水也。

⑥ 尺內兩傍，則季脇也，尺裏以候腎，尺外以候腹中。附上左，內以候肝，外以候鬲。右，內以候脾，外以候胃。上附上，左，內以候心，外以候臍中。右，內以候肺，外以候胸中。前以候前，後以候後，上竟上者，胸喉中事也，下竟下者，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

⑦ 脈大者，陰不足陽有餘，爲熱中也。來疾去徐，上實下虛，爲厥顛疾。來徐去疾，上虛下實，爲惡風也，故中惡風者，陽氣受也。有脈俱沈細數者，少陰厥也。沈細數散者，寒熱也。浮而散者，爲胸仆。諸浮而躁者，皆在陽，則爲熱。其有躁者，在手。諸細而沈者，皆在陰，則爲骨痛。其有靜者在足。數動一代者，在陽之脈也，洩及便膿血。諸過者切之，滑者陽氣有餘也。澹者陰氣有餘也。陽氣有餘，爲身熱無汗。陰氣有餘，爲多汗身寒。推而以外之，內而不外，有心腹積也。推而內之，外而不內，身有熱也。推而上之，下而不上，腰足清也。推而下之，上而不下，頭項痛也。按之至骨，脈氣少者，腰脊痛而身有痹也。

①문단의 다섯가지 물음 중에서 ②문단의 답은 五藏의 맥상을 四時의 氣象에 비유하여 설명한 것과 內와 外를 맥으로 찾는 이 여섯 가지를 持脈之大法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①문단의 病之所在, 病之所變, 病乍在內, 病斯在外 등을 맥으로 알려면 ②문단의 다음은 五藏의 진맥방법 및 부위를 內外와 연관시켜 설명한 문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③문단과 ④문단은 五藏의 비정상적인 變을 맥으로 설명한 부분이므로 정상적인 五藏의 진맥부위를 설명한 뒤라야 이 부분의 설명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③문단과 ④문단은 진맥부위를 설명한 다음 부분에 옮겨야 함이 마땅하고 생각된다.

그리고 ⑤문단은 五藏의 病을 色과 脈으로 연관시켜 病의 新久를 살피는 방법을 설명한 부분이다. 이 문단은 五藏의 맥상과 진맥부위를 알아야 五藏의 색과 연관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문맥의 내용상 맥을 설명한 ⑦문단의 뒷부분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1. 『素問·脈要精微論』의 “尺”에 대한 제가들의 견해」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⑥문단은 五藏의 진맥부위 및 방법을 설명한 부분이므로 이상 고찰한 것을 토대로 위의 문단을 재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① 帝曰，脈其四時動奈何，知病之所在奈何，知病之所變奈何，知病乍在內奈何，知病乍在外奈何，請問此五者可得聞乎？岐伯曰，請言其與天運轉大也。萬物之外，六合之內，天地之變，陰陽之應，彼春之暖，爲夏之暑，彼秋之忿，爲冬之怒，四變之動，脈與之上下，以春應中規，夏應中矩，秋應中衡，冬應中權。是故冬至四十五日，陽氣微上，陰氣微下。夏至四十五日，陰氣微上，陽氣微下。陰陽有時，與脈爲期，期而相失，知脈所分，分之有期，故知死時。微妙在脈，不可不察，察之有期，從陰陽始，始之有經，從五行生，生之有度，四時爲宜，補瀉勿失，與天地如一，得一之精，以知死生。是故聲合五音，色合五行，脈合陰陽。

② 是故持脈有道，虛靜爲保。春日浮，如魚之遊在波。夏日在膚，泛泛乎萬物有餘。秋日下膚，蟄蟲將去。冬日在骨，蟄蟲周密，君子居室。故曰，知內者按而紀之，知外者終而始之。此六者，持脈之大法。

③ 尺內兩傍，則季脇也，尺裏以候腎，尺外以候腹中。附上左，內以候肝，外以候鬲。右，內以候脾，外以候胃。上附上，左，內以候心，外以候臍中。右，內以候肺，外以候胸中。前以候前，後

以候後，上竟上者，胸喉中事也，下竟下者，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

④ 臟大者，陰不足陽有餘，爲熱中也。來疾去徐，上實下虛，爲厥顛疾。來徐去疾，上虛下實，爲惡風也，故中惡風者，陽氣受也。有脈俱沈細數者，少陰厥也。沈細數散者，寒熱也。浮而散者，爲胸仆。諸浮而躁者，皆在陽，則爲熱。其有躁者，在手。諸細而沈者，皆在陰，則爲骨痛。其有靜者，在足。數動一代者，在陽之脈也，洩及便膿血。諸過者切之，滑者陽氣有餘也，澹者陰氣有餘也，陽氣有餘，爲身熱無汗。陰氣有餘，爲多汗身寒。推而以外之，內而不外，有心腹積也。推而內之，外而不內，身有熱也。推而上之，下而不上，腰足清也。推而下之，上而不下，頭項痛也。按之至骨，脈氣少者，腰脊痛而身有痠也。

⑤ 心脈搏堅而長，當病舌卷不能言。其奕而散者，當消環自己。肺脈搏堅而長，當病唾血。其奕而散者，當病灌汗，至令不復散發也。肝脈搏堅而長，色不青，當病墜若搏，因血在脇下，令人喘逆。其奕而散，色澤者，當病溢飲，溢飲者渴暴多飲，而易入肌皮腸胃之外也。胃脈搏堅而長，其色赤，當病折脾。其奕而散者，當病食痹。脾脈搏堅而長，其色黃，當病少氣。其奕而散，色不澤者，當病足脰腫若水狀也。腎脈搏堅而長，其色黃而赤者，當病折腰。其奕而散者，當病少血，至令不復也。

⑥ 帝曰：有故病五藏發動，因傷脈色，各何以知其久暴至之病乎？岐伯曰：悉乎哉問也。微其脈小色不奪者，新病也。微其脈不奪其色奪者，久病也。微其脈與五色俱奪者，此久病也。微其脈與五色俱不奪者，新病也。肝與腎脈並至，其色蒼赤，當病毀傷，不見血，已見血，濕若中水也。

①문단은 '內'와 '外'의 진맥방법을 묻고 있으며, ②문단은 '內'와 '外'에 대한 진맥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③문단의 '內'와 '外'도 진맥

법으로 설명되어져야만 ④문단의 “推而以外之，內而不外，有心腹積也。推而內之，外而不內，身有熱也.”와도 문맥과 내용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3) 조선말 李圭峻의 견해」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①문단의 “陰陽有時，與脈爲期，期而相失，知脈所分，分之有期，故知死時。微妙在脈.”의 내용 중 진맥부위를 『素問·至眞要大論』에서는 尺과 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 寸과 尺의 관계를 浮沈(天上地下)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1) 元明清代 주석가들의 견해」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內經』 素書에는 寸關尺인 三部脈에 관한 설명이 없으며, 「2) 현대주석가들의 견해」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尺膚法은 藏府의 질병을 진찰하는 법이 아니라 신체 전반적인 증상을 진찰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藏府의 진맥방법을 설명한 ③문단은 左右手의 寸關尺 및 尺膚法을 설명한 문장이 아니라 尺을 기준으로 하여 浮沈으로 진맥하는 방법을 설명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3.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外以候心，內以候臍中.”의 각 문구에 대한 고찰

이상 고찰한 것을 근거로 하여 “尺內兩傍則季脅也，……外以候心，內以候臍中.”의 문구를 편의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 “尺內兩傍則季脅也，尺外以候腎，尺裏以候臍中”

본문의 내용은 尺에서 腎의 살핌을 설명한 부분이므로, 腎脈과 관련된 병증을 설명하고 있는 『素問·五藏生成篇』의 “診病之始，五決爲紀，

欲知其始, 先建其母. 所謂五決者, 五脈也. 是以頭痛顛疾, 下虛上實, 過在足少陰巨陽, 甚則入腎.”(을66) 참고로 하면 腎의 진맥부위인 尺의 所在를 알 수 있다. 이 문장의 내용은 頭痛顛疾의 여러 원인 중 下虛上實하면 경락으로는 足少陰太陽에 원인이 있고 脈으로는 腎脈에서 찾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下虛上實’을 근거로 하여 腎脈의 진맥부위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下虛上實을 구체적으로 맥상과 연관시켜 설명한 부분은 『素問·脈要精微論』의 ‘來疾去徐, 上實下虛, 爲厥顛疾.’이다.(67) 이를 滑壽는 『診家樞要』에서 ‘來’라는 것은 筋骨의 分으로부터 皮膚의 가장자리로 나갈 때에 氣가 오름이다. ‘去’라는 것은 皮膚의 가장자리로부터 骨肉의 分으로 돌아 갈 때에 氣가 내림이다.”라고(68)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來疾去徐’는 淺部인 皮膚로 올라오는 맥은 빠르고 힘이 있으나 深部인 骨部分으로 내려가는 맥은 느리고 힘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腎의 虛寒으로 인한 頭痛顛疾을 진맥하면 맥상은 淺部인 皮膚부위는 유력하고 深部인 骨부위는 무력한 상태를 나타내며, 이는 곧 下虛上實한 상태이다. 그리고 「3) 조선말 李圭峻의 견해」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寸은 淺部に 해당되고 尺은 深部に 해당된다. 따라서 이 때 一指로 氣口를 짚었을 때 皮膚부위인 寸이 유력하고 骨부위인 尺이 무력한 상태를 나타내므로, 腎脈의 부위인 尺은 깊이 눌러 骨에 닿는 부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문의 ‘內’와 ‘外’를 『素問·脈要精微論』의 전후문단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內者按而紀之’와 ‘外者終而始之’의 張介賓과 高世栻의 注를 참고하면(69)70) ‘內’는 손가락을 깊이 누른다는 뜻이고, ‘外’는 깊이 눌린 곳에서 손가락을 위로 들어 올려 얇은 곳을 살핀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內外는 맥의 浮沈을 설명한 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張介賓과 高世栻은 內를 五臟, 外를 六腑로 보았으나, 清代 黃琳은 外를 五臟, 內를 六腑로 보았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黃琳은 그의 저서인 『脈確』에서 “外와 內는 浮沈이며, 浮는 陽에 속하고 沈은 陰에 속한다. 臟腑를 陰陽으로 논하면 臟은 陰이고 腑는 陽이다. 臟腑의 氣로써 논하면 오히려 臟氣는 清하고 腑氣는 濁하다. 清氣는 上升하고 濁氣는 下降한다. … 臟氣는 清하기 때문에 浮部에서 살피고, 腑氣는 濁하기 때문에 沈部에서 살핀다.”라고(71) 하였다.

그런데 清濁을 논한 『素問·陰陽應象大論』에는 “清陽爲天, 濁陰爲地.”라고(72) 하였으며, 『素問·五臟別論』에 “夫胃大腸小腸三焦膀胱, 此五者, 天氣之所生也, 其氣象天, 故寫而不藏.”

69) 類經, 張介賓, 前掲書, p.108. “內言藏氣, 藏象有位, 故可按而紀之. 外言經氣, 經脈有序, 故可終而始之. 然必知此四時內外六法者之法, 則脈之時動, 病之所在, 及病變之或內或外, 皆可得而知也. 故爲持脈之大法.”

70) 高世栻, 黃帝素問直解,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2, pp.128~129. “重手按脈, 紀其至數, 則知在內之脈, 故曰知內者按而紀之. 輕按爲始, 重按爲終, 由終而輕, 則知在內之脈, 故知外者終而始之.”

71) 黃世林, 孫明異, 中醫脈象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p.5~6. “浮陽也, 沈陰也. 以藏府論則藏陰而府陽, 以藏府之氣論則藏氣清而府氣濁. 清氣上升, 濁氣下降, 脈之見于寸關尺者, 五藏六府之氣, 藏氣清故浮候之, 府氣濁故沈候之也.”

72) 洪元植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掲書, p.23.

66) 洪元植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前掲書, p.39.

67) 前掲書, p.59.

68) 程士德主編, 素問註釋匯粹, 前掲書, p.255. “滑壽(診家樞要)云: “來者, 自骨肉之分, 而出于皮膚之際, 氣之升也. 去者, 自皮膚之際, 而還于骨肉之分, 氣之降也”

此受五藏濁氣，名曰傳化之府，此不能久留，輸寫也，……所謂五藏者藏精氣而不寫也，故滿而不能實。六府者，傳化物而不藏，故實而不能滿也。”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內經』에서는 傳化之府인 六府의 氣는 清陰인 天의 氣象으로서 五藏의 濁陰을 받아 傳化하는 역할을 하고, 五藏은 清氣를 上升하는 것이 아니라 濁陰인 地의 氣象으로서 精氣를 藏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內에서 藏을 살피고, 外에서 府를 살핀다고 한 張介賓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尺內兩傍則季脅也”와 “尺裏以候腹中.”의 “兩傍”과 “裏”의 의미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주석가들은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尺外以候腎，尺裏以候腹中.”에서, ‘尺內兩傍’과 ‘尺外’를 對句로 보고 ‘尺裏’를 ‘尺內’와 ‘尺外’의 中間으로 보았거나, ‘尺裏’의 對句를 ‘尺外’라고 보았다.⁷³⁾

그러나 『素問·玉機眞藏論』에서 秋脈을 설명한 부분에 “其氣來毛，而中央堅，兩傍虛”라고 하여 “兩傍”을 중앙에 對比되는 양쪽 가장자리로 설명하고 있는 바, ‘尺內兩傍則季脇也.’란 尺部를 손가락으로 깊이 눌렀을 때(內者按而紀之) 양쪽 가장자리에 나타는 맥으로 季脇의 상태를 살핀다는 뜻이므로, 兩傍은 중앙의 대비되는 의미이다. 또 ‘裏’는 『康熙字典』에서 “『說文』

裏，衣內也，『小雅』不屬於毛不離于裏，『班固幽通賦』單治裏而外凋兮.”라 하여 바깥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裏”의 對句는 바깥을 뜻하는 “外”와 “兩傍”이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藏을 內에서 살피고, 이에 연관된 부위를 外에서 살피는 것을 참고하면 “內”와 “外”가 對句를 이루므로 “裏”는 “外”의 對句가 될 수 없다. 그리고 字典적인 의미로 볼 때 “裏”는 “內”와 “外”의 중간으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裏”의 對句는 “兩傍”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內”에서 藏을 살피고 “外”에서 府를 살피므로 “尺裏以候腎”은 “尺內裏以候腎”에서 ‘內’자가 생략된 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尺內兩傍則季脅也，尺外以候腎，尺裏以候腹中.”은 “尺內兩傍則季脅也，尺裏以候腎，尺外以候腹中.”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상을 참고하여, 本文의 ‘內’를 五藏으로, ‘外’를 그 藏과 연관된 인체의 부위로 고치면 “尺內兩傍則季脅也，尺裏以候腎，尺外以候腹中，附上，左，內以候肝，外以候鬲；右，內以候脾，外以候胃。上附上，右，內以候肺，外以候胸中；左，內以候心，外以候膻中.”으로 되며, 여기서 “尺內兩傍則季脅也”는 氣口의 深部인 尺부위를 눌러(內者按而紀之) 手指의 양쪽 바깥부위에 나타나는 맥상으로는 季脅을 살핀다는 뜻이고, “尺裏以候腎”은 尺부위를 깊이 눌러 手指의 중앙부분에 나타나는 맥상으로 腎을 살핀다는 뜻이며, “尺外以候腹中”은 위로 약간 들어 올려(外者終而始之) 나타나는 맥상으로는 腹中을 살핀다는 의미이다.

2) “附上，左，內以候肝，外以候鬲，右，內以候脾，外以候胃。上附上，右，內以候肺，外以候胸中；左，內以候心，外以候膻中。”

여기서 ‘附’를 『黃帝內經太素』에서는 膚라

73) 上揭書, p.42.

74) 李慶雨譯, 譯解編注黃帝內經素問1,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437. “尺部에서 小指側 少海穴에 가까운 곳이 ‘尺內’이고, 中指側 曲池穴에 가까운 곳이 ‘尺外’이다. ‘尺裏’는 尺部 內外의 중간에 해당하는 곳이다. >楊上善 “(眞는)尺內로부터 兩 中間에 해당하는 곳이다.” >王冰 “尺外’는 尺의 外側을 이르고, ‘尺裏’는 尺의 內側을 이룬다.”

고 注하였으며⁷⁵⁾, 『新編黃帝內經綱目』에서는 靠近(근접하다)으로 注하였다⁷⁶⁾. 이 들이 ‘附’를 이렇게 注한 이유는 본 문단을 尺膚診法으로 보았기 때문인데,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이 문단은 一指로 浮沈을 살피는 법을 설명한 부분이므로 ‘附上’을 ‘(指를 떼지 말고 그대로) 붙여서 위로 올려’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左右’는 오른쪽, 왼쪽이라는 의미와 上下의 의미가 있다. 左右를 左手와 右手로 해석하게 되면 一指로 左手에서는 肝, 心을 살피고 右手에서는 脾, 肺를 살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진맥하는 부위는 左手와 右手의 두 곳을 합쳐야 肝心과 脾肺를 진맥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內經』의 진맥법은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寸에서 尺까지를 浮沈으로 짚어 五藏의 맥상을 알아내는 법이므로, 본문의 左右를 左手와 右手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左右’를 上下의 개념으로 설명한 것을 살펴보면, 『儀禮』에 “當左物”의 注에 “左物, 下物也.”라 한 것과, 『史記』에 “右賢左戚”의 注인 索隱에 “右, 猶高也. 左猶下也.”한 것과, 『管子·七法』에 “以練精銳爲右”의 注에 “右上也.”라 한 것에서 ‘左’는 ‘下’, ‘右’는 ‘上’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韓非子』의 篇名을 나눌때 內儲說은 上下로 구분하여 內儲說上, 內儲說下로 구분하였는데, 外儲說을 나눌 경우는 上下로 나눈 후 다시 이를 上下로 나눌려니 外儲說上上, 外儲說上下, 外儲說下上, 外儲說下下가 되므로 이 上下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篇名을 外儲說左上, 外儲說左下, 外儲說右上, 外儲說右下

로 나누었다. 즉 上下의 개념인 ‘左右’를 사용한 경우는 上下를 다시 上下로 나눌 때 단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리고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은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深部인 尺을 중심으로 淺部인 寸까지 위로 들어올려 五藏의 맥상을 알아내는 법을 설명한 문장이다.

이상과 같은 의미로 『素問·脈要精微論』의 “附上, 左, 內以候肝, 外以候膈. 右, 內以候脾, 外以候胃. 上附上, 右, 內以候肺, 外以候胸中; 左, 內以候心, 外以候臆中.”의 ‘附上’과 ‘上附上’의 ‘左右’를 해석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의미로 설명한 ‘附上’과 ‘上附上’을 거듭 나누고자 할 때 ‘左右’를 사용한 것이므로, 본문의 ‘左右’는 문맥상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層數를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上附上, 右, 內以候肺, 外以候胸中; 左, 內以候心, 外以候臆中.”에서 左보다는 右가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左인 心의 진맥부위가 먼저 설명되고 난 다음 右인 肺의 진맥부위가 설명되어야 하므로, “上附上, 左, 內以候心, 外以候臆中, 右, 內以候肺, 外以候胸中.”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이상을 근거로 하여 본문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붙여서 올린 층의 內에서 肝을 살피고 外에서 膈을 살피며, 한 층위의 內에서 脾를 살피고 外에서 胃를 살핀다. 그 위로 붙여 올린 층의 內에서 心을 살피고 外에서 臆中을 살피고 그 윗 층의 內에서 肺를 살피고 外에서 胸中을 살핀다.”이다.

이상을 총괄하면, “尺內兩傍則季脅也, 尺裏以候腎, 尺外以候腹中, 附上左, 內以候肝, 外以候膈; 右, 內以候脾, 外以候胃. 上附上, 左, 內以候

75)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86, p. 229. “跗當爲膚, 古通用字, 故爲跗耳.”

76) 李今庸主編, 新編黃帝內經綱目, 前掲書, p. 365.

心, 外以候臆中, 右, 內以候肺, 外以候胸中.”尺內兩傍則季脅也”에 대한 제가들의 견해 중에, “氣口의 深部인 尺부위를 눌러 手指의 양쪽 바깥 부위에 나타나는 맥상으로는 季脅을 살피고, 手指의 중앙부분에 나타나는 맥상으로 臂을 살피며, 위로 약간 들어 올려 나타나는 맥상으로는 腹中을 살핀다. 그리고 붙여서 올린 층의 內에서 肝을 살피고 外에서 鬲을 살피며, 한 층위의 內에서 脾를 살피고 外에서 胃를 살핀다. 그 위로 붙여 올린 층의 內에서 心을 살피고 外에서 臆中을 살피고 그 윗 층의 內에서 肺를 살피고 外에서 胸中을 살핀다.”라고 해석한 李圭峻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結論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 尺外以候臂, 尺裏以候腹中, 附上左, 外以候肝, 內以候鬲; 右, 外以候胃, 內以候脾. 上附上, 右, 外以候肺, 內以候胸中; 左, 外以候心, 內以候臆中.”을 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본문의 尺은 氣口의 가장 深部를 말하므로, 이에 對比되는 淺部는 寸이 됨을 유추할 수 있다.

(2) 본문 중 ‘內外’는 浮沈을 말하는데, ‘內’는 손가락을 깊이 누른다는 뜻이며 여기서는 五藏을 살피는 것이고, ‘外’는 깊이 누른 곳에서 손가락을 위로 들어 올려 얇은 곳을 살핀다는 뜻으로 五藏과 연관 인체 부위를 살피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內’를 五藏으로, ‘外’를 그 藏과 연관된 인체의 부위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된다.

(3) “尺內兩傍則季脅也, 尺裏以候臂, 尺外以候腹中.”에서 “兩傍”은 “裏”와 서로 對句가 되며,

‘內’와 ‘外’가 서로 對句를 이룬다. 그리고 “內”에서 藏을 살피고, “外”에서 府를 살피므로 “尺內兩傍則季脅也, 尺外以候臂, 尺裏以候腹中”은 “尺內兩傍則季脅也, 尺裏以候臂, 尺外以候腹中.”으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되며, ‘尺裏以候臂’은 ‘尺內裏以候臂’의 ‘內’가 생략된 문장임을 알 수 있다.

(4) “左右”의 字典的인 의미는 오른쪽, 왼쪽을 뜻하는 경우와 左는 下, 右는 上을 뜻하는 경우가 있으며, 上下로 나눈 것을 거듭 나눌 때 단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런데 본문은 一指로 눌러 짚어 深部인 尺에서부터 淺部인 寸까지 위로 들어올려 五藏의 맥상을 알아내는 법을 설명한 문장이다. 이상과 같은 의미로 본문의 ‘附上’과 ‘上附上’의 ‘左右’를 해석하면, ‘左右’는 문맥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層數를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上附上, 右, 內以候肺, 外以候胸中; 左, 內以候心, 外以候臆中.”에서 心보다는 肺가 위에 위치하므로 左인 心의 진맥부위가 먼저 설명되고 난 다음 右인 肺의 진맥부위가 설명되어져야 하므로, “上附上, 左, 內以候心, 外以候臆中, 右, 內以候肺, 外以候胸中.”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5) (2), (3), (4)를 종합하면, 본문은 “尺內兩傍則季脅也, 尺裏以候臂, 尺外以候腹中, 附上左, 內以候肝, 外以候鬲; 右, 內以候脾, 外以候胃. 上附上, 左, 內以候心, 外以候臆中, 右, 內以候肺, 外以候胸中.”으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된다.

(6) 그러므로 본문에 대한 제가들의 견해 중에서 氣口의 深部인 尺부위를 눌러 手指의 양쪽 바깥부위에 나타나는 맥상으로는 季脅을 살피고, 手指의 중앙부분에 나타나는 맥상으로 臂을 살피며, 위로 약간 들어 올려 나타나는 맥상으

로는 腹中을 살핀다. 그리고 붙여서 올린 膻의 丙에서 肝을 살피고 外에서 鬲을 살피며, 한 층 위의 丙에서 脾를 살피고 外에서 胃를 살핀다. 그 위로 붙여 올린 膻의 丙에서 心을 살피고 外에서 膈中을 살피고 그 윗 층의 丙에서 肺를 살피고 外에서 胸中을 살핀을 설명한 문장이라고 해석한 李圭峻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參考文獻

- 高世斌, 黃帝素問直解, 香港,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2.
- 丹波元簡, 素問識 難經疏証, 聿修堂醫書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 丹波元堅 等著, 脈學輯要, 聿修堂醫書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 戴啓宗, 脈訣刊誤(影印本), 香港, 商務印書館.
- 戴思恭 校補, 金匱鉤玄(影印本), 香港, 商務印書館.
- 馬蒔,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서울, 成輔社, 1975.
- 賈得道, 中國醫學史略, 山西省, 山西人民出版社, 1979.
- 方藥中 許家松,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出版社, 1986.
- 王琦 外四人, 素問今釋, 貴州省, 貴州人民出版社, 1981.
- 王九思 等集注, 難經集注, 台北, 中華書局, 1985.
- 王永, 補注黃帝內經素問,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 李圭峻, 素問大要(影印本), 서울, 驪江出版社, 1988.
- 李今庸 主編, 新編黃帝內經綱目,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 李時珍, 本草綱目, 香港, 商務印書館, 1930.
-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出版社, 1982.
- 張介賓, 景岳全書,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0.
- 趙恩儉主編, 中醫診斷學, 서울, 醫聖堂, 1993.
-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匯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 華佗, 中藏經,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 滑壽, 難經本義, 臺北, 旋風出版社, 1977.
- 黃世林, 孫明異, 中醫脈象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